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3. 23.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3월 23일(수) 14:04~16:48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및 제1차부터 제5차,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4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MMF 시장 위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미국 사례를 볼 때 위축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충격들은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위원) 기존에 있었던 안정적 자산 이외에 우체국·증권금융

회사 예치금, 증권금융회사 발행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안정적 자산으로 추가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 (보고자) 작년말 기준으로 금감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현재 기준에서는 30% 충족을 못하는 MMF가 42개이고 30%를 충족하려면 최소한 7.2조 원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데 안정적 자산을 추가하면 4.5조 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음.

- (위원)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인데 30%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 (보고자) CP 시장이나 전자단기사채 시장의 충격을 생각해서 감내 가능한 범위가 얼마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고, 현재도 전체 MMF의 안정적 자산 평균은 32% 수준으로 평균수준이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2호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직무규칙 훈령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3호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심사대상 중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제재면제요건을 충족하면 개선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한국거래소가 당초 정해진 시장위원회 심의일정을 연기할 예정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4호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보고안건 제12호 『키움증권(주)의 (주)코크렙제38호기업구조조정부
동산투자회사 사후 출자승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 의결안건 제45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보고안건 제13호 『○○○○○(○○○○○○○○) ○○・○○○
○ ○○○○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46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제가 주식을 하게 된 동기가 □□□□□□ ●●● 매니저님의 추천으로 인한 것이고, ●●● 매니저님은 주식 관련하여 30~40년 경력이 있는 매니저임. 그분에게서 저평가된 회사인 ○○○○○○○○(주) 지주회사를 소개를 받았음. 제가 연결재무제표나 순이익, 영업이익을 보니 상당한 우량회사이고 3분의 1밖에 적용이 안 된 회사여서 주식을 매수하게 됐음. 처음에는 ○○○○○○○○(주)를 한 2,000~3,000주 사다가 이 회사가 좋아서 20,000~30,000주를 사다 보니까 어떤 세력들이 이 회사에 대한 재미들을 흔들어서 털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음. 종가에 들어가면 항상 하한가에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게 생각해서 한국거래소에 신고도 했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많이 잃어서 필사적으로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됐음. 저는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10%~20% 이렇게 올려서 재미들 흔들어서 몇 백% 올리는 것이 주가조작인줄 알았더니 제가 이번에 조사를 받아보니까 “제가 한 행위도 오해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함.

○ (위원) 2020년 8월부터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셨음. 본인은 인지하지 못

했다고는 하시지만 그 기간 중에 증권사로부터 22차례에 걸쳐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통보를 받았고 16차례에 걸쳐서 수탁거부를 받으셨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거래가 불법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 (진술인) 제가 그 증권사에나 한국거래소에도 얘기해봤더니 수탁거부가 되면 매도는 할 수 있지만 매수는 못 한다고 했음. 전 재산을 다 거기에 올인(all-in)을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매매가 나올까봐 증권사도 인계받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수탁거부가 되더라도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막으면 된다는 일념에 그렇게 했음.

○ (위원) 부당이득 금액이 손실보신 것으로 해서 한 2억여 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당이득 금액이 실제 손실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데, 주식투자한 지금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진술인) 6월15일까지 한 5,000~7,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음.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저희가 호가창이나 매매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주식거래의 양태에 대해서 정확히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 그래서 본 대리인은 정상참작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함. 지금 당사자는 이번에 문제가 됐습시다만 이전에 전혀 불공정거래 전력은 물론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조사받은 사실 조차도 없음. 따라서 어떤 부분까지 시세조종이 되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됨. 통상적으로 알려진 전형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다수인의 조직이 각기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총책, 자금책, 플레이어(player) 등 나눠서 역할분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사자 같은 경우는 누구와 함께 소통해서 주가를 흔든 것이 아니라 본인 혼자 주식거래를 했음. 또한, 일반적인 주식교란행위는, 특히 시세조종 같은 경우는 다수의 단말기가 이용되는 반면에 당사자는 본인 소유의 단 하나의 컴퓨터만 가지고 이 주문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다음에 보통 전형적인 시세조종 행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매매 대금의 흐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는 모두 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주문이 아마 종가관리 됐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실제 현재가보다 몇호가 높게 주식거래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아마 당사자는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거래가 시세조종으로 판단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명의로 거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세력과 연계되어서 주가조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대의 단말기로 주문을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주가에 엄청난 큰 변화를 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이 됨. 또한, 문제가 되는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거래를 통해서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사실임. 당사자가 정작 '이것이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종가

에 조금 높은 고가매수라든가, 또는 주문을 하다가 취소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가 아는 전형적인 것과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의심스러운 주식 주문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기회에 실제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되, 본인이 혼자 단말기를 통해 본인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 확연하게 전형적인 주식거래와 다른 점을 감안하시어 현재의 고발조치에서 한 단계 감경된 수사기관 통보로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7호 『(주)엔에스엔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8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9호 『에스엘(주)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공매도 주문한 주체에 대해서 향후에 제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전에 저희들이 제재했던 것과 모순되지 않는지?

- (보고자) 기존에 자산이전관리자를 조치한 사례는 자산이전 관리자가 주문지시를 한 경우로서 자산관리자가 주문을 제출한 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여서 모순점은 없다고 생각됨.

○ (위원) □□□□□□에 대해서도 사전통지를 하셨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5시3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 의결안건 제12호 『(주)한진칼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장) 제12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주)XXXX 측의 보유목적 변경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 금융위 법령해석 등을 고려할 때 xxxx년 xx월xx일 당시 (주)XXXX 측이 (주)한진칼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유목적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주)XXXX 측이 보유한 (주)한진칼 주식의 담보제공 관련 변경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1,88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보유목적 변경 지연보고에 대한 최초 사례로서 지연 혐의기간이 길지 않고 공시기준에 대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사안에 대한 선례로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그렇게 볼 경우 제도 취지에 따른 적시성 있는 보고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증선위는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사안별로 내심의 변경 등과 관련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안을 장기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제도 운영실태의 점검과 개선 필요성

이 대두되었음. 경영권 영향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의 구분 등과 관련하여 제도취지에 맞는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장에 알려 줄 필요가 있어 보임. 금융위 소관부서는 금감원과 함께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 나머지 (유) [] [] [] [] [] [] [] [] []가 보유한 (주)한진칼 주식의 담보제공 관련 변경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50호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한공회의 감리결과를 존중하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회사와 관계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명하도록 하겠음. 첫째로 한공회에서는 검찰 통보의 대상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00을 포함하였음. 지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연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당시에는 000과 고인인 000가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주요업무는 고인인 000가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었음. 000가 현재까지 살아 있었다면 검찰통보 되었을 가

능성이 높는데 그 행위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다른 임원이 대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음. 둘째로 회사와 000, 000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적발 경위가 000의 지시에 따른 재무제표 자진정정이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제3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음. 또한, 회사는 법인세까지 과오납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음. 본 건 지적내용에 따르면 회계담당자가 올바르게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오히려 위반한 재무제표보다 자기자본이 좋아지는 상황임. 회사는 당시 000이 100% 주주였고 사채 등 증권발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회사의 차입금은 담보여력이 충분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음. 외부감사법 위반행위로 인한 최대피해자는 회사와 000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검찰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 드림.

- (위원) 회계와 감사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신 분이 000 대표이사님이 아닌 000 대표이사님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와 주임종단기차입금 포함해서 자산, 부채 부당상계 위반행위가 2018회계연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는 000 대표이사님께서 단독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2018년도에 주임종 그것은 관례대로 해 온 것 같음. 2016년, 2017년에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2018년도에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됨. 그리고 회계 서명(sign)

한 것은 제가 최대주주이니까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마다 대표이사로 서명(sign)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하라고 해서 공동대표이사로 제가 이름만 올렸고 제가 서명(Sign)을 하게 된 것임.

- (위원) 2018년과 2011년도 ООО가 대표이사로 재임하지 않았던 시점에도 고의 회계분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관행적으로 2016년, 2017년 계속 하다 보니 2018년도에 제대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ООО 대표이사께서 신경을 못 쓰셨던 것 같음.

- ▶ (진술인) 2011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음.

- (위원) ООО씨가 돌아가시고 ООО 대표이사님께서 회사 내용을 파악하면서 재무제표 수정하셨다고 했는데 주임종차입금은 자산부채 부당상계인데 수정을 왜 안 하셨는지?

- ▶ (진술인) ООО 대표이사께서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수정을 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임. 이 부분은 ООО 상무가 세무조사할 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부당상계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ООО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감추어야 할 상황은 아니었음.

- ▶ (진술인)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보

고를 받은 기억이 없음.

- (보고자) 회사는 주임종차입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요구,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부채비율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회사 관련 주임종단기차입금을 자산과 이익에 상계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음.

○ (위원) 회계 관련 서류의 서명을 ООО 대표이사께서 하셨는데 내용을 알고 하셨는지?

▶ (진술인) 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한 달에 한 번 다 서명(sign)하라고 해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sign)을 했음.

○ (위원) 주임종 상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과 ООО 대표이사님과 계속해서 공동대표이사였는데 2011년에는 왜 단독대표이사였는지와 서류에 ООО 대표이사님의 서명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ООО씨한테 전부 맡기고 경영에는 사실상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51호 『(주)훼미리종합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52호 『삼덕산업개발(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53호 『비전블루(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54호 『선진네트웍스(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55호 『(주)해성합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56호 『리엔리하이테크(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48분 폐회)